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 9:1-9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기록은 3번이나 반복된다. 본문은 누가의 입장에서 기록이고 다음 두 번의 기록은 바울 자신의 간증으로서의 기록이다. 처음 간증은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 받아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에게 한 간증이었고 두 번째의 간증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의 간증이었다. 이 시간 우리는 누가의 입장에서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중요성을 이해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1. 회심 이전의 바울(9:1-2)

누가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모질게 반대하는 자로 나타난다. 스테반이 죽을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7:58)고 했다. 그는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8:1). 그가 호호 그리스도인을 찾아 수색하여 남녀를 끌어내어 감옥에 보내면서 교회를 파멸 시키기 시작 했다(8:3).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9:1). 그는 사납고 잔인한 짐승같은 존재라고 칼빈은 주석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회심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때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미리 속단하기 쉽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맡기고 누구에게든지 열심히 전도하자.

2.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3-8)

누가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

8:3-8을 읽어 보자.

-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 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막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오아시스인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사울에게 일어난 사

건이다.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3절). 그것은 너무나 앞도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를 소경으로 만들었다(8-9절). 그래서 그는 엎드려 졌다(4절). 그는 그의 정복자(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다. 그러자 한 소리가 그를 개인적으로 또 직접 불렀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누구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 하는 예수라“고 대답 하셨다. 바울이 직접 예수를 핍박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 한 것은 예수를 핍박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자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다. 바울은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의 주장들은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곧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했다(6절). 사울은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8절). 자만에 가득차 용감무쌍한 그는 콧대가 꺾이고 눈이 먼 채 그리스도의 포로로 그곳에 들어 갔다.

이상을 존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주관적이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활 하시고 이제는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출현이었다. 그가 본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으며, 그가 들은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앞뒤 가리지 않는 핍박의 질주를 가로 막으시고 그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환 시키셨다.“

사울을 공략한 주권적 은혜는 돌연한 것도 아니었으며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다.

첫째 그의 회심은 종종 사람들이 말한 것과 같이 '돌연한 회심'이 아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는 표현은 그가 그 때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때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가시 채찍을 뒷발질 하는 것은 네게 고통스러운 일이다'(26:14) 이라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 말의 뜻은 당시 헬라문학과 라틴 문학에서 자주 사용된 속담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사울을 팔팔하고 고집 센 젊은 수소로, 그리고 자신을 가시 돋힌 채찍으로 그 소를 훈련 시킨 농부에 비유한다. 그것이 의미한 바는 예수님은 막대기로 찌르고 쭈시면서 사울을 추격하고 있으며, 그가 저항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쓸데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가시 채찍이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 그는 의식적으로는 예수님을 협잡군으로 생각하고 거부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 몰아 낼 수 없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그의 지성과 양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또한 스테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그의 양심에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울의 가시 돋힌 채찍은 지적인 것 뿐만 아니라 도덕 적인 것이었다. 사울의 꺼림칙한 마음은 아마도 그의 집요한 의심들 보다 그에게 훨씬 더 많은 내적인 혼란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외적인 의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 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의 생각들, 동기들, 욕망 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탐심을 갖지 말라는 열 번째 계명이 그에게 죄를 깨닫게 했다(로마서 7:7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는 다른 계명들은 말과 행동으로 순종 할 수 있었지만 탐심은 말과 행동도 아니고 그가 통제 할 수 없는 마음의 성향이였다.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가시 돋힌 채찍이였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회심은

하늘의 사냥개(그리스도)가 그를 오랫동안 추격해 왔던 과정이 돌연히 절정에 이른 것이다. 우리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전적인 순간에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또한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은 사울이 회심하도록 강제적으로 굴복하도록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최면적 상태에서 행동을 하도록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 하느냐?' 하는 탐색적 질문을 하신다. 그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스스로 깨달도록 그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였다. 사울은 그의 환상과 목소리에 압도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바른 정신으로 첫째, '주여 뉘시니까?'(5), 둘째,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22:10)라고 말함으로 이성적이고, 성실하며, 자유로운 것이었다.

존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그의 회심을 요약한다.

" 사울이 회심한 원인은 은혜.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었다. 하지만 주권적인 은혜는 점진적인 은혜요 부드러운 은혜였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난폭하지 않게 그분의 가시 돌힌 채찍을 갖고 사울의 마음을 찌르셨다. 그다음에 그는 빛과 소리로서 자신을 계시 하셨는데, 이는 그를 압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신적 은혜는 인간의 인격을 짓밟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참으로 인간적이 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속박 시키는 것은 죄이며, 해방 시키는 것은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교만과 편견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굴레에서 해방 시켜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준다. 우리는 다소 출신 사울과 같은 광포한 고집통이에게, 그리고 실로 우리 자신과 같은 교만하고, 반항적이며, 제멋대로의 존재 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따름이다."

이상에서 사울의 회심은 그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누구든지 사울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과정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통을 겪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과거 믿기 전의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며 주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다.